

■ 대일논단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자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백지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작은 힘만 가져도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뒷심이 모자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산학연 협력에서 찾고 싶다.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을 경험했던 핀란드나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 1, 3위에 오를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과 사업화 노력을 기울인 대학-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있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스웨덴의 시스타, 일본의 타미클러스터 등 세계의 대표적인 혁신단지 성공사례들도 대학·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의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회사들이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고서도 시장 검증 단계에서 설비와 인력 부족으로 사업화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와 인력 문제 등은 매번 넘어야 하는 산인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강점을 모아 최적의 인프라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만났던 광주시 소재 모 회사의 대표가 “모두가 각각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로 합쳐져 융화,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한 것 역



정 영 태

“
저마다 갖고 있는 장점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가로막고 있던 한계의 벽도
순식간에 넘을 수 있어

”
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입각한 산학연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로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를 바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부터 단기 R&D 과제 중심에서 2년 이상 중기 전략 과제를 신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기술개발의 장이 열렸으며, 국내 대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연구기관과도 국제산학연협력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시장을 주름잡

는 초우량 중소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솟아난다. 이는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이득이 아니다. 부산 소재 B대학의 교수는 “산학연 협력이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이 된다”고 말해 대학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산학연 협력이 내포하고 있는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상호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최대목표인 반면, 대학·연구기관은 사업화보다 연구개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야만 진정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과제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연대감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중 소기업청에서도 연간 중소기업 R&D 정책자금 중 90%가 단순 기술개발 지원에 쏠려 있던 것을 과제 기획 및 기술사업화 R&D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은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상호 신뢰를 든든하게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의식을 다져야 한다. 단순히 서로의 장점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다.

큰 짐을 실은 수레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는 완벽하게 제작된 바퀴라도, 두 바퀴가 한 수레에 달려 있지 않고 외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가치를 드러내기 어렵다.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원한다면, 협력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저마다 갖고 있는 장점을 한데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가로막고 있던 한계의 벽도 순식간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해본다. 중소기업청 차장